

디자이너 이상철을 통해 본 1960-1970년대 초반 한국 디자인

Korean Design in the 1960s and Early 1970s as Seen through Designer
Rhee Sangchol

강승연

(쿤스트앤디 대표)

Kang Sungyoun

(President, kunst&d)

1.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1.2. 연구 방법과 범위
2.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과 디자이너
 - 2.1. 기업 공채 디자이너의 등장(1958-)
 - 2.2. 광고 대행 전문회사의 설립(1967-)
 - 2.3. 그래픽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의 등장(1962-)
3. 1960-1970년대 초반 이상철의 디자인
 - 3.1. 1962-1970년 이상철의 한국산업은행 재직 시기
 - 3.1.1. 『A Decade of Korean Industry 1964』
 - 3.1.2. 《産友(산우)》
 - 3.2. 1971-1973년 한국브리태니커 제작 시기
 - 3.2.1. 엘리건스에서 모더니스트들을 만나다
 - 3.2.2. 아트디렉션 개념을 도입한 잡지 《배움나무》
 - 3.2.3. 《배움나무》의 디자인
4. '이상철 스타일'의 특징과 형성 과정
5. 맺음말

* 이 논문은 투고자의 2020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디자이너 이상철 연구」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투고일 2021년 7월 12일

심사일 2021년 7월 12-23일

게제확정일 2021년 8월 9일

Received Date 12 July 2021

Reviewed Date 12-23 July 2021

Accepted Date 9 August 2021

pp.010-033

요약

한국의 디자인사에서 1960년대는 국가 차원 디자인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1966) 개최와 ‘한국디자인포장센터’(1970)가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공채 디자이너가 처음 등장하고, 각 기업에서는 제품디자인 부서를 신설한 시기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에서 당시 디자이너들의 증언과 문헌을 통해 국가 주도 외에도 기업 활동과 출판을 통한 다양한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전문 디자인 회사들의 활동이 1960년대부터 한국 디자인 현장에서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철의 한국산업은행의 재직기(1962-1970)와 한국브리태니커의 재직기(1971-1973)를 중심으로 그의 주요 작업을 분석했으며, 관련 인물의 구술면접자료와 문헌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시기 한국 디자인의 현장 상황 전반을 파악했다. 이 연구를 통해 1960-1970년대 초반 한국 디자인계는 국가 산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기도 했지만, 1960년대 한국의 대학에서 디자인교육을 받은 디자이너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기업의 디자인실과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할 시기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철의 작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당시 활동 결과물을 많이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기록과 증언만으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연구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 연구가 한국의 1960년대 디자인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핵심어

한국디자인사, 이상철, 1960년대, 한국산업은행, 한국브리태니커, 배움나무

Abstract

For Korean design, the 1960s and early 1970s was a period when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1966) was first held and the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1970) was established as part of a national design promotion policy. As a result, designers began to be publicly recruited by companies, and each company established product design departments. However, the testimonies and literature materials of designers at the time, which this study is based on, showed that various activities by graphic designers and design companies started to appear in Korean design scenes from the 1960s, and centered around diverse design projects through business activities and publications, not just design projects l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works of Rhee Sangchol while he was working for the Korea Development Bank (1962-1970) and Britannica Korea (1971-1973). Based on oral, in-depth interviews with related people and literature materials, I discerned the overall flow of Korean design in those day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1960s and early 1970s, a variety of design projects emerged as part of the government's industrial promotion policy, and that as trained designers from Korean universities started working, corporate

design departments and specialized design studios also began to emerge at this time. Except for Rhee Sangchol's works, I have not yet found many results of the activities from those days, but records and testimonies confirmed the above facts, and I will continue to expand this study based on this content. I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to study the 1960s' Korean design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Keywords

Korean Design History, Rhee Sangchol, 1960s, Korea Reconstruction Bank, Korea Development Bank, Britannica Korea, The Learning Tree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아트디렉터라 알려진 디자이너 이상철의 《뿌리깊은나무》 이전의 작업을 찾는 것에서 시작했다. 심층면접을 통해 《뿌리깊은나무》를 창간하기 전 잡지의 콘텐츠와 디자인의 전신이 되었다는 《배움나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배움나무》의 아트디렉팅을 맡으면서 이상철이 한창기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한국브리태니커에 입사한 후 한국의 민화를 새롭게 조명한 『한국 민화의 멋』을 발행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 한국산업은행 재직기인 1962-1970년까지 9년 동안 어떤 작업과 과정이 있었기에 소위 '이상철 스타일'이라 불리는, 당시에는 파격적인 편집디자인 스타일이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했다. 이상철은 한국산업은행 재직 당시 가장 대표작으로 『A Decade of Korean Industry 1964』를 꼽았고, 한국산업은행의 사내보 《産友(산우)》를 중요한 작업으로 꼽았다. 이러한 핵심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당시 많은 발행 자료들을 접하면서 《뿌리깊은나무》의 창간을 둘러싼 실험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자의 초기 관심이 1960년대 이상철의 작업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1960년대는 국가 차원의 디자인 진흥 정책 일환으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1966) 개최와 '한국디자인포장센터'(1970) 설립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이에 따라 기업의 공채 디자이너가 처음 등장하고, 각 기업에서는 제품디자인 부서를 신설한 시기이다.¹⁾ 이 연구는

그 외에도 자료가 충분치 않아 조명하지 못했던 1960-1970년대 민간 주도 디자인 활동 관련 생생한 현장의 미시적 기록을 찾아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를 위해 이상철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1차 기초 자료를 만들었고, 이 자료의 진위를 하나하나 추적해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또한 관련 인물들의 추가 심층면접을 통해 객관적 증언들을 확보했다. 이상철과의 8회 대면 심층면접을 기록, 녹취한 것 중 3회의 내용을 이 연구에 주로 참조했으며, 관련 인물로는 한국산업은행 재직 시에 인연이 있었던 문병국, 이병혜²⁾를 심층면접했으며, 강지민, 조의환 등 1960-1970년대 한국 디자인계 현황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은 만나 증언 자료를 확보했다. 1960년대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에서 발행한 대다수의 보고서, 그리고 사내보 《産友(산우)》의 일부, 한국브리태니커의 《배움나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A Decade of Korean Industry 1964』는 그동안 이상철이 다양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디자이너로서 가장 처음 작업한 출판 작업이고, 1960년대 초반 국내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인쇄방법과 디자인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여러 차례 증언한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도 그가 정확한 서명과 출판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기에 찾는 데에만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꾸준한 추적 끝에 최근에서야 찾을 수 있었다.

1차 문헌자료는 이상철의 증언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에서 발행한 1960년대 보고서와 1954년 한국산업은행 설립과 함께 창간한 사내보 《産友(산우)》의 일부분, 그리고 고서적을 취급하는 중고서점을 통해 확보한 당시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의 자료들을 분석했다. 1970년대 초반의 자료로 실물을 볼 수 있었던, 한국브리태니커 사내보 《배움나무》와 『한국 민화의 멋』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브리태니커 사내보 《배움나무》는 1970년 2월 창간하여 1976년 3월 《뿌리깊은나무》 창간 직전까지 발행한 잡지이다. 1976년 당시는 새로운 잡지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으므로 《뿌리깊은나무》는 《배움나무》의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즉 《뿌리깊은나무》의 모체가 된 잡지이다. 『한국 민화의 멋』은 한국브리태니커가 한국 전통을 되살리자는 목적으로 진행했던 많은 사업의 첫 출발이었다는 이상철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판단했다.

연구범위는 이상철의 한국산업은행 재직기(1962-1970)와 한국브리태니커 재직기(1971-1973), 두 시기를 중심으로 했으며, 관련 인물의 심층면접과 문헌자료를 토대로 이 시기 이상철의 주요작업과 함께 한국 디자인 현장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했다.

1) 월간디자인 편집부, 「세계 정상에 도전하는 우리의 공업 디자인」, 《월간디자인》 5월호, (디자인하우스, 1977), pp.84-95
 2) 1973년 이상철이 설립한 '이가솜씨 어소시에이즈'는 1998년 '쥬디자인

이가스퀘어'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출판사 뿌리깊은나무에 잠시 근무했던 이병혜는 이때 이상철과의 인연으로 이가솜씨 디자이너로 입사했으며 현재 디자인 이가스퀘어의 대표이다.

2.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과 디자이너

2.1. 기업 공채 디자이너의 등장(1958-)

1958년 금성사 공채 디자이너로 입사한 박용귀, 최병태는 1960년 최초의 국산 라디오 'A-501호(AC 2BRND Radio)'³⁾를 개발, 출시했다. 이후 1960년에는 고을한, 김상순이 포함되어 공업의장실이 발족되었으며, 1975년에는 디자인 연구실로 개칭, 1976년에는 20명의 디자이너가 종사하는 연구실로 확장되었다. 최초의 국내 생산 라디오를 디자인한 박용귀는 1977년 금성사 퇴사 후,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를 설립했으나 몇 년 후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969년 1월 창립 당시 1명의 디자이너를 채용했고, 1971년 디자이너를 공개 채용함으로써 본격적인 디자인 업무를 시작했다. 1972년 포터블 TV(SW-C315), 1975년 전자손목시계(WX-01-10S)를 디자인한 홍성수, 1973년 포터블 TV(SW-C342)를 디자인한 김영창, 1974년 라디오(SP-320P)를 디자인한 갈종로, 1976년 전자손목시계(WX-02-11G)를 디자인한 김충한, 1976년 믹서(MJ-1210)를 디자인 최현창 등이 있었다.

대한전선은 1971년 각 공장 개발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디자이너를 통합하여 1973년 12월 생산부서인 의장개발과를 정식 발족했다. 1976년 당시 디자이너 15명(그래픽 디자이너 3명 포함), 목업 제작실 디자이너 4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다. 1975년 19" TV(RC-907), 1976년 17" TV(RS-704U)를 디자인한 박종서, 14" TV(RP-405U)를 디자인한 김태호, 1976년 선풍기(H-3561)를 디자인한 김철호 등이 그들이다.⁴⁾ 1960-1970년대 성장 위주 산업사회에서는 이들 공업디자이너의 등장과 활약이 돋보였다.

1956년 한국 최초의 CF 애니메이션 'OB 시냇코'를 제작한 문달부는 1956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 HLKZ-TV⁵⁾에 입사하여 방송용 자막, 배경 그림, CF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이후 락희화학공업사(지금의 LG화학)로 옮겨 광고와 다양한 시각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그룹의 선전사업부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했다.⁶⁾

2.2. 광고 대행 전문회사의 설립(1967-)

국내에서 제품 디자인이 활성화되자 자연스럽게 광고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1967년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이 발족되었다.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은 국내에서 최초로

3) 《월간디자인》 1977년 5월호 특집기사 '세계 정상에 도전하는 우리의 공업 디자인'에 금성사는 1958년 박용귀, 최병태 공채를 시작으로 1960년 '공업 의장실'로 발족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시화의 『한국의 현대디자인』(열화당,

1976)에는 한국 최초의 공업 디자인 분야가 기업에 설치된 것이 1959년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많은 문헌에서 A-501은 박용귀의 디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월간디자인》 1977년 5월호에는 박용귀와 최병태의 합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pp.84-95
4) 월간디자인 편집부, 「세계 정상에 도전하는 우리의 공업 디자인」, 《월간디자인》 5월호, (디자인하우스, 1977), pp.90-95
5) 1956년 선보인 KORCAD의 HLKZ-TV는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으로 채널 9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서울을 가시청권으로 한 이 방송은 처음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1957년 5월 한국일보 사주에게 양도되어 DBC로 개편했다. 이후 1959년 2월 화재로 시설이 소실되자 AFKN-TV의

광고 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현대적 개념의 광고 대행사로 기록되어 있다. 1969년에는 두산그룹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만보사'를 설립한다. '합동통신 광고기획실'이 본격적인 광고 대행체제를 갖추었고, 이후에는 '오리콤'으로 발전하지만 초창기 형태는 통신사의 부서 성격에 머물렀다.

김진평은 1970년대에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 디자이너로 재직했으며, 합동통신사에서 발행한 《리더스다이제스트》 한국어판⁷⁾의 디자인을 맡았다. 1977년 《월간디자인》 5월호 특집기사에는 당시 합동통신사 재직 디자이너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김희춘(피어리스 피어니의 "안녕하세요" 캠페인 심볼, 피어리스 피어니 캠페인 신문광고(1976), 피어리스 신년 신문광고, 새한자동차 심볼마크 등), 한재웅(우어모드 브랜드 로고타이프(1976)), 김철한(속리산 고속 심볼마크, 고려페인트 심볼마크(1976)), 조성환(비비안 로고타이프(1976)), 유경조(남영나이론 비비안 잡지광고(1976)), 권문웅과 명광철(킨사이다 심볼마크, 킨사이다 포스터, 코카콜라 잡지광고), 한기윤(파카크리스탈 로고타이프), 한희환(오비맥주 포스터) 등 디자이너의 활동이 기록되었다. 1973년 1월에는 체일기획이 설립되어, 한태원, 나홍찬, 이재철, 박무일,

조용민, 김강용, 신성완, 김태형, 김강웅, 박승순, 김형권, 김두황, 이복식, 이창호 등이 1977년 당시 디자이너로 활동했다.⁸⁾

이에 비하여 '만보사'는 더 독립적인 광고회사로 특정 매체나 브랜드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성을 추구하려 했다. 1968년 한국에 처음 들어온 코카콜라를 주 고객으로 하여 가장 서구적인 형태의 광고활동을 했다. 1975년 '만보사'는 출자자인 두산그룹에 의하여 해산되어 합동통신사에 통합되었고, 1979년 '오리콤'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3. 그래픽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의 등장(1962-)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개념의 디자인 전문 에이전시, 혹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시점을 어느 시기로 봐야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한 다양한 문헌 기록은 찾기 어려웠으나 문헌자료에 1960년대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가 생기기 시작했고, 197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회사들이 등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 대표적 디자인 전문회사로 '이가솜씨 어소시에이츠'⁹⁾와 '조영제 디자인 연구소(CHO Design Research)'를 꼽을 수 있다. 이 두 회사는 1973년 설립되어 '이가솜씨

7) 도움을 받아 방송을 하다가 1961년 개국하는 KBS-TV에 채널 9와 제작 요원들을 대부분 넘겨주고 문을 닫는다. (한진만, 『사라진 방송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p.38-39(전자책))

8) 한윤정, 『최초의 CF애니메이션 제작, 문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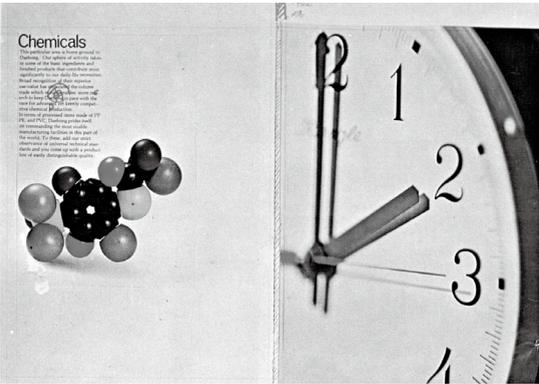
선생』, 《애니메이툰》 91호, (아이포포덕션, 2011), pp.54-55

9) 《리더스다이제스트》 한국어판은 1978년 11월 합동통신사에서 발행되었고, 1980년부터는 연강학술재단(현, 연강재단)의 전신, 이후 동아출판사, 두성동아)에서

발행하였으며, 2009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8) 월간디자인 편집부, 『합동 하이라이프』, 《월간디자인》 5월호, (디자인하우스, 1977), pp.76-83

9) 이상철은 1973년 '이가솜씨 어소시에이츠' 설립 이전에 1972년 '하나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를 먼저 설립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으나 현재 '디자인 이가스퀘어'는 '이가솜씨'라는 회사명을 사용한 1973년을 공식적인 회사 창립년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림 1] 대봉산업 카탈로그에 실린 정연종의 일러스트레이션,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p.6-7

[그림 2] 선광기획의 대봉산업안내책자(1977),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14

[그림 3] 유디자인연구소의 주식회사 금강의 해외 카탈로그,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17



[그림 4] 유디자인연구소가 디자인한 로켓트 건전지 심볼 마크,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19



삼화고속



대한교육보험



한국산업리스(시안)



서울우유



동양맥주

[그림 5] 오병권이 디자인한 다양한 심볼 마크,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21

어소시에이츠는 ‘디자인 이가스퀘어’로, ‘조영제 디자인 연구소’는 ‘CDR 어소시에이츠’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당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와 디자이너들의 기록은 1978년 《월간디자인》 4월호의 ‘창작의 의욕과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는 서울의 그래픽 스튜디오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는 ‘이제 막 싹트려고 하는 그래픽 스튜디오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인간, 작품, 경영, 미래상을 진단해 보았다’라는 글과 함께 ‘코디’의 박재진¹⁰⁾, ‘선광기획’의 정연중, ‘이가솜씨’의 이상철의 대담을 실었다. 《월간디자인》은 ‘이 세 스튜디오는 군소의 많은 서울의 그래픽 스튜디오 중,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스튜디오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에는 이 밖에도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로는 1971년 설립한 ‘유디자인 연구소’의 아트디렉터 이동표, 1962년 ‘김동선광고미술연구소’를 설립한 김동선 대표, 1972년 리차드 캔 신크가 성북동 한옥에 설립한 ‘패시픽 미디어 코리아’를 소개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박 스튜디오’의 박정원, 프리랜서 디자이너 오병권, ‘동서기획’의 고배홍을 소개하고 있다.¹¹⁾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1970년대에도 많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있었으며, 광고 디자인, 포장 디자인, 기업 보고서, 기업 심볼 마크 등의 디자인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 1960-1970년대 초반 이상철의 디자인

1960년대는 한국 산업디자이너가 형성되는 여명기라 볼 수 있다. 1958년 금성을 시작으로 1960년대 기업에서는 제품 디자이너를 공채로 뽑기 시작했으나 그래픽 디자이너를 기업에서 채용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기에 이상철은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하여 홍보업무를 맡게 되었고, 1962년 디자이너로서의 첫 출발을 시작한다. 1970년까지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에서 다양한 홍보물과 보고서를 디자인했고, 1971년부터 한국브리태니커로 이직했으며, 1973년에는 ‘이가솜씨’를 설립하여 편집디자인과 광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한국 디자인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상철이 디자이너로 출발한 시기, 전문 디자인 회사를 설립한 시기는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한국 디자인계의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앞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3.1. 1962-1970년 이상철의 한국산업은행 재직 시기

3.1.1. 『A Decade of Korean Industry 1964』

이상철이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한 1962년은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10) 김종균은 『한국의 디자인』 (안그래픽스, 2013)에 박재진은 한국 최초 서린호텔 CI 편람을 제작한 것으로 기록했으며, 이상철 또한 당시 박재진의 서린호텔 CI를 중요한 작업으로 꼽았다.
11) 월간디자인 편집부, 「서울의 그래픽 스튜디오들」, 《월간디자인》 4월호, (디자인하우스, 1978), pp.4-39

정부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총력을 쏟았던 시기다. 정부는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오기 위해 한국을 소개하는 홍보물이 필요했다.

이상철은 한국산업은행의 조사부에서 홍보업무를 맡게 되었고, 입사하자마자 맡게 된 홍보 관련 업무 중 하나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기 위해 한국 산업의 가능성을 알리는 책자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 당시 한국에는 참고할만한 홍보 인쇄물 디자인이 전혀 없었고, 그는 전문 디자인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을 위한 업무를 위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터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위치해있던 명동에는 외국의 잡지들을 판매하는 중고 서점이 있었다. 《루크(Look)》, 《라이프(Life)》, 《타임(Time)》, 《플레이보이 (Playboy)》, 《내셔널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 등을 통해 서구의 편집 디자인 스타일을 접하게 된 이상철은 선진국의 여러 산업은행에 홍보 책자 제작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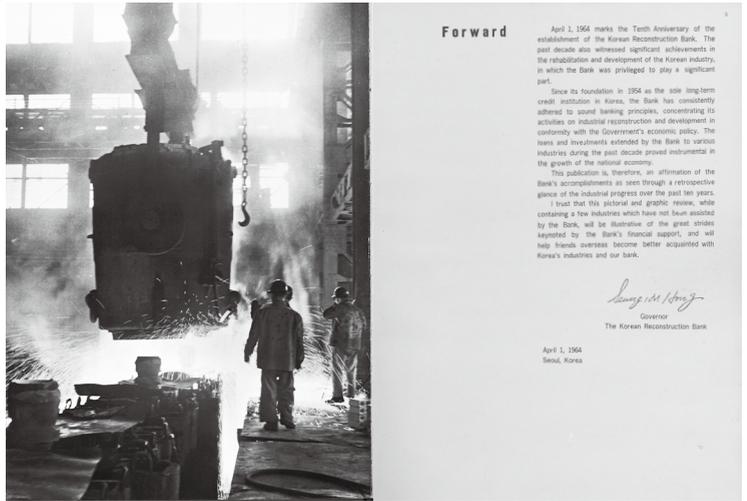
한두 달이 지난 뒤 한국산업은행의 조사부 앞으로 전 세계 각국의 산업은행에서 자료들을 보내왔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나라로부터 은행 홍보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참고삼아 한국의 산업 10년사를 소개하는 『A Decade of Korean Industry 1964』를 디자인했으며, 전국의 산업 현장을 누비며 책자에 들어갈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 1962년 당시 한국산업은행에는 전속 사진작가인 김명환이 있었고, 한국산업은행 관련 사진은 모두 그가 촬영하고 있었다.

이상철은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었지만 막연하게 외국에서 온 자료에 실린 사진처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보겠다고 전속작가인 김명환에게 제안을 했고, 김명환은 사진을 직접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 회사 측에 4×5 대형카메라, 6×6 핫셀블라드, 35mm 롤라이플렉스 등의 카메라 구입을 요청하고, 카메라 사용법을 독학으로 공부했다. 1962년에는 한국에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상철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대표적인 기업으로 연합철강, 오늘날 삼성의 전신인 한국비료, 시멘트를 만들던 쌍용, 라디오를 생산하던 금성사 등이 있었다. 이 시기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 믿었고, 중공업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금 마련에 정부가 총력을 다한 때였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이상철의 새로운 시도에 회사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회사에서 지원해준 랜드로버 차량에 카메라 3대를 싣고 비포장도로로 울산, 포항, 부산 등의 공업단지를 돌아다니며 촬영했으며, 한국산업은행 본점 옆 현재 롯데 영플라자 자리에 있던 '쓰리세븐 현상소'에서 현상과 인화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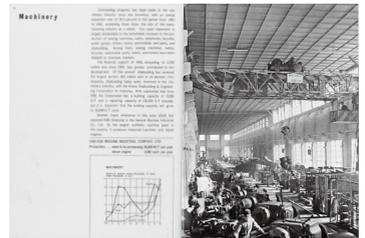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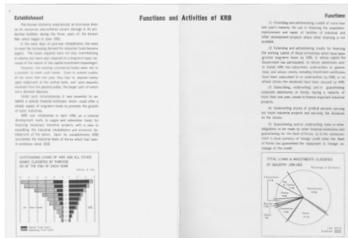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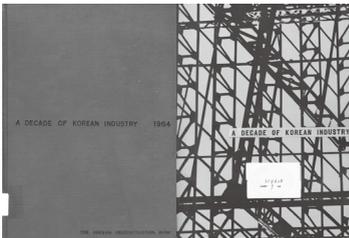
선진국 인쇄 홍보물의 사진을 참고하면서 인공조명이 아닌 자연광에서 찍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노출을 여러 방법으로 촬영해 실험했다. 인쇄를 맡았던 '삼화인쇄'에

12) 이상철은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아트디렉터 이상철'의 이름으로 한국산업은행에서 보내는 공식 레터를 보냈다고 한다. 이상철은 참고했던 서양의 잡지에서 '아트디렉터'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역할이 자신이 한국산업은행에서 하는 역할과 같다고 생각하고 '아트디렉터'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다.



[그림 8] 『A decade of Korean Industry 1964』의 표지와 내지. 영문으로 만들어진 이 홍보책자는 이상철의 증언에 의하면 모노타이프(monotype) 방식으로 인쇄를 했고, 인포그래피는 직접 수작업으로 그렸으며, 사진은 전국의 산업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찍었다. 책자의 내지에는 누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디자인을 했는지의 기록은 없으나 인쇄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 있다. The Korean Reconstruction Bank(한국산업은행) 발행, Printed by Samhwa Printing Co, Ltd, 1964



일본에서 인쇄한 책자들을 보여주면서 스크린 선수를 150선으로 요청했고, 이러한 다양한 노력 끝에 한국 산업 현장의 발전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홍보책자가 발간되었다. 이 홍보책자의 발행 이후 한국산업은행의 조사 분석 보고서에도 변화가 생겼다. 1964년 이전에 발행한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의 보고서에는 데이터를 [그림 8]과 같은 그래프로 보여주는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숫자만 정리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 시기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조사부의 분석 보고서에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다양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굵기가 다른 라인을 활용한 도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눈에 띈다. 이러한 도표 디자인이 당시에 신선한 디자인이었음을 문병국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알 수 확인할 수 있었다.

1964년 제일모직에 근무했던 문병국¹³⁾은 당시 한국산업은행의 보고서와 홍보책자의 디자인을 접하고 제일모직의 10년사 제작을 위해 수순문 끝에 이상철을 직접 찾아와 디자인을 의뢰했다고 한다.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직원이었던 이상철은 제일모직의 10년사 책자 작업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문병국에 의하면 특히 표의 오른쪽과 왼쪽 라인이 없는 디테일이 매우 보였다고 한다.

3.1.2. 《産友(산우)》

《産友(산우)》는 한국산업은행의 창립년도인 1954년 창간한 한국산업은행의 사내보다. 이상철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문학을 전공한 직원들이 쓰기도 했으나 화보를 기획하고 사진, 글, 디자인까지 대부분의 원고를 이상철이 썼으며, 최인호의 글도 연재했다고 한다. 당시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에 작가 최인호의 형이 있었고, 동생이 글을 잘 쓴다고 추천을 해서 사내보에 최인호의 연재가 실렸다.

이상철은 《産友》의 디자인을 맡아 사보 디자인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 때의 경험이 《배움나무》를 디자인하는 데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지금까지 실물로 확인한 《産友》의 내지 디자인은 세로쓰기와 한자가 주로 쓰인 전형적인 1960년대 출판물 디자인을 보여준다. 이상철 심층면접 내용을 토대로 《産友》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1962-1965년까지는 이상철이 디자인과 기획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실물을 확인한 《産友》는 1954-1967년까지의 발행본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産友》는 1967년까지 일부분만 소장되어 있고, 위의 증언내용을 《産友》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상철이 군 제대 후 한국산업은행에 복귀하는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産友》의 기획과 디자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産友》에는 이상철의 작품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그림 9]

13) 문병국은 1964년 제일모직에 입사, 이후 1977년 '캠브리지'의 대표가 되어 '캠브리지'를 한국 남성 정장의 대표 브랜드로 이끌었다. 1986년 '트래드클럽'을 론칭,

'캠브리지'와 마찬가지로 남성 정장의 정상 브랜드로 이끈 '한국 남성복의 대부'라 인정받는 인물이다. '캠브리지'와 '트래드클럽'을 이상철과 함께 브랜드링했다.

3.2. 1971-1973년 한국브리태니커 재직 시기

3.2.1. 엘리건스에서 모더니스트들을 만나다

이상철은 1965-1967년까지 군복무를 했고, 제대 후 1968년에 한국산업은행으로 복귀한다. 복귀한 한국산업은행에서 이상철은 여의도 개발계획에 참여하여 책자 제작을 맡았고, 덕분에 여러 건축가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디자인에 대한 열망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그는 한마디로 '신세계'를 만났다. 엘리건스 인테리어(지금의 (주)계선, 이하 엘리건스) 대표 장충섭과의 만남이다. 장충섭과의 인연으로 그는 1969년도부터 비정규직으로 엘리건스에 출퇴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철은 그동안 보아왔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 세상, 그의 표현에 의하면 '신세계'를 접하게 된다. 디자인에 대한 열망은 가득하나, 어떻게 어디서부터 배워야하는지 모르고 혼자 방황하며 독학을 하던 20대의 이상철에게 엘리건스를 통해 접한 서양 모더니스트들, 임스(Charles Eames), 브로이어(Marcel Breuer)와 《도무스(Domus)》 잡지까지 모더니즘 디자인이 그곳에 결집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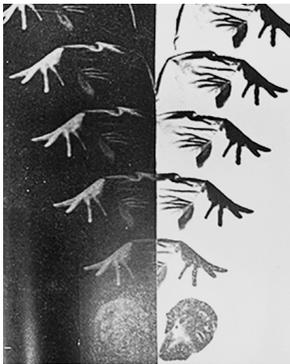
디자인의 불모지와 같은 당시 한국 현실에서 엘리건스는 신세계이자 돌파구와 같아 보였고, 이상철은 엘리건스로 이직하려 했으나 한국산업은행에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그는 한국산업은행에서 퇴근 후 엘리건스의 디자인팀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1년 반

동안 지속했다.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의 특성상 다양한 디자인 실험을 할 수 없었던 이상철은 엘리건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접한 모더니스트들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이 시기에 이상철이 엘리건스에서 했던 디자인 작업 중 현재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이 바로 《배움나무》다. 《배움나무》는 미국의 잡지 레이아웃 스타일과 스위스 스타일의 타이포그래피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엘리건스에 접한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작업을 접하면서 인테리어나 건축에 눈뜨기 시작한다.

1970년 한국브리태니커의 대표 한창기는 직원 교육을 목적으로 사내보를 발행하고 있었다. 이미 서양의 세련된 출판물을 많이 접한 한창기에게 이 사내보의 디자인은 매우 중요했다. 한창기에게는 사내보인 《배움나무》의 디자인을 새롭게 맡아줄, 한창기의 눈썰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했다. 한창기는 엘리건스의 장충섭 대표에게 그 작업을 의뢰했고, 장충섭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철에게 《배움나무》의 리뉴얼 디자인 작업을 맡겼다. 이를 계기로 이상철은 한국산업은행을 퇴사하여 한국브리태니커로 이직한다.

3.2.2. 아트디렉션 개념을 도입한 잡지 《배움나무》

한국 디자인사에서 《뿌리깊은나무》는 한국 최초로 아트디렉션 제도를 도입한 잡지로 알려져 있다. 한국산업은행 시절 이상철은 스스로 '아트디렉터'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그림 9] 1965년 34호, 35호 《塵友》에 실린 이상철의 사진 작품. 이상철은 당시를 '사진에 미쳐있었다'라고 증언했다. 《塵友》의 34, 35호에 실린 카메라 작품집의 이상철 사진은 현대 무용가 리몽(José Limón)이 1963년 대구 내한공연을 왔을 때 직접 공연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아트디렉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이러한 고민은 《뿌리깊은나무》의 전신인 《배움나무》에서 잡지 아트디렉터로서의 역할로 드러났다.

이상철은 《배움나무》 초기에는 시각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모든 작업을 혼자 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디렉터인 이상철의 눈썰미를 만족할만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할 수 있는 디자인팀이 없었기 때문이다. 표지,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을 그가 혼자 맡아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배움나무》의 작업과정에서는 점점 아트디렉터로서의 역할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디자인에서 그의 디렉팅을 받은 디자이너들의 작업이 나타났다.

1) 《배움나무》의 발행 초기
(1970.2-1971.12)

《배움나무》의 초기 내용은 한국브리태니커 내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들과 우수한 실적의 사원들의 인터뷰와 승진기사, 각 부서의 판매 실적, 그리고 한국브리태니커과회원 중에서 당시 유명 인사들의 기사가 실렸다. 이 시기 《배움나무》의 돋보이는 특징은 당시 잡지 출판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사각형의 판형과 세련된 디자인이다. 이는 1970년 10월호부터 이상철이 아트디렉션을 맡아 시작된 파격적인 시도였다.



[그림 10] 1970년 10월-1971년 12월호의 표지는 정사각형이다. 《배움나무》가 사내보의 용도로만 발행되던 시기로 표지에 브리태니커 사진들이 모델로 등장했다. 이상철은 1970년 11/12월 합본호의 표지는 직접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1971년 6월호부터 10월호까지는 김병섭이 디자인을 맡아 진행했기 때문에 디자인 스타일이 다르다. 다시 11/12월 합본호부터 이상철이 표지, 디자인, 사진을 맡는다. 1972년 1월-1973년 2월호의 표지는 정사각형 판형에서 가로가 조금 좁아진 판형으로 발행되었고, 이상철이 디자인한 제호가 사용된다. 위 표지 중에서 1972년 9월호와 1973년 2월호를 제외한 모든 호는 이상철이 아트디렉팅뿐 아니라 표지 디자인을 직접했다.

2) 브리태니커 구독자를 위한
《배움나무》의 변화(1972.1-1973.2)

1972년 1월호부터 《배움나무》는 브리태니커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잡지로 성격을 바꾼다. 사내 직원들만을 위한 기사는 대폭 축소되었고, 일반 독자를 위한 콘텐츠를 담은 잡지로 변화했다. 이때부터 《배움나무》 발행을 위한 편집고문, 편집팀, 미술팀 등이 구성되었다.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적 내용의 글과 '에티켓'이라는 주제로 매달 서구식 매너 상식을 연재하는 글이 실렸다. 2월호부터 컬러 광고가 등장하고, 3월호부터는 표지 2면에 금성의 세탁기 광고를 시작으로 대기업 광고가 나오는 등의 변화가 눈에 띈다. 특히 5월호부터 한국 전통문화의 대한 콘텐츠가 등장한 이후,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룬 표지 이미지와 한국의 고전문학, 판소리, 민화 등을 기사로 다뤘다. 12월호부터 매달 한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잡지를 구성하여 페이지의 양도 대폭 늘렸다.

3) 《뿌리깊은나무》를 준비하는
《배움나무》(1973.3-1975.12)

1973년 3월 《배움나무》는 정사각형의 판형을 버리고, 4×6판형(130×185mm)으로 돌아간다. 이는 당시 한국브리태니커의 경제적인 이유로 추측된다. 작아진 책의 내용은 《배움나무》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교육적 목적과 한국 전통문화와 한글에 대한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독자들이 이러한 잡지에 목말랐음을 《배움나무》를 통해 확인한 발행인 한창기는 종합교양문화잡지로 확대해서

발행하고자 《뿌리깊은나무》의 창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배움나무》에서 꾸준히 알렸다. 아트디렉터였던 이상철은 1973년 10월호부터 미술팀에서 이름이 빠진 것으로 보아 1973년 9월호까지 디렉팅을 한 후 《뿌리깊은나무》의 창간준비호 작업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3.2.3. 《배움나무》의 디자인

1) 표지와 판형

이상철이 《배움나무》의 아트디렉팅을 하게 되면서 보여주었던 가장 큰 변화는 직사각형의 판형이 정사각형의 판형으로 바뀐 점과 표지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일정한 전략과 포맷이 없던 표지에 《배움나무》가 지향하는 이미지를 심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그달의 우수사원 얼굴을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사원의 사기를 높이고 자부심을 갖도록 표지의 정체성을 부여했다. 1972년 1월호부터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삼는 잡지로 내용을 개편한 후 문화예술인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린 표지로 콘셉트를 바꾼다. 이는 내용적인 면에서 《배움나무》가 지향하고자 한 교양, 문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표지를 통해 보여주하고자 함이다.

정방형 판형을 시도한 이유에 1960년대 유럽 디자인 잡지들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상철이 즐겨보던 잡지들 중 덴마크의 디자인 잡지 《모빌리아(Mobilia)》와 이탈리아의 잡지 《오타고노(Ottagono)》가 정방형 혹은 정방형에 가까운 잡지였다. 한국에서 잡지의 판형이 정방형 형태로 발행된 사례는 1966년 창간한 《공간(SPACE)》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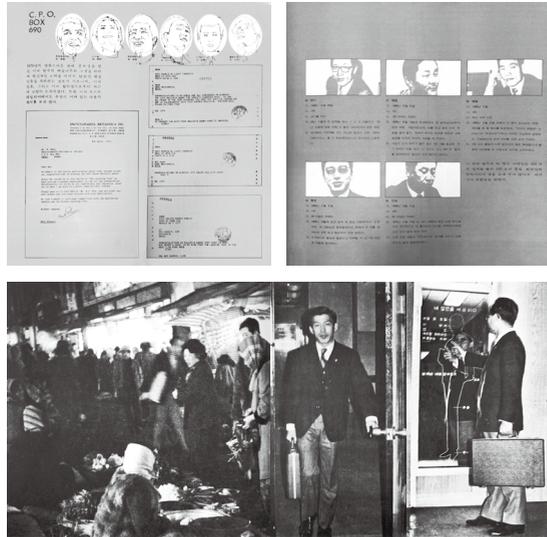
[그림 11] 1970년 2월 창간호-1970년 11/12월호의 표지. 이 시기의 《배움나무》는 실물을 찾을 수 없었으나, 1971년 2월호에 창간 1년을 기념하는 기사에서 표지 이미지들은 찾을 수 있었다. 《배움나무》는 1970년 2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직사각형의 판형(130×185mm, 4×6판으로 추측)으로 발행되었고, 1970년 10월부터 이상철이 디자인을 맡으면서 판형과 디자인의 변화를 보였다.



[그림 12] 덴마크 디자인 잡지 《모빌리아》 1970년 3월, No.176의 표지(좌), 이탈리아 디자인 잡지 《오타고노》No.3 (Ottobre 1966)의 표지(우). 이 잡지를 디자인 한 그레고리예띠(Salvatore Gregorietti)는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고 비넬리(Massimo Vignelli)의 유니마크(Unimark International)에 근무했던 디자이너다.



[그림 13] 정방형의 《배움나무》 내지. 3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면 활용 레이아웃을 보여주었다.



[그림 14] 사진의 콘트라스트를 극대화하여 그래픽 이미지화하는 것은 《배움나무》의 대표적인 그래픽 스타일이다. 내지의 컬러 사용과 그래픽 디자인은 2도 인쇄방식을 적용했다. 먹 1도와 컬러 별색을 써서 경제성과 시각적 효율성을 쫓았다.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주요한 시각 이미지 전달 방식의 하나로 등장한다. 왼쪽의 사진은 종로 야시장을 촬영한 것이고, 가운데와 오른쪽 두 사진은 이달의 우수사원들을 소개하는 사진으로 한국브리태니커의 공식 유니폼과 가방을 착용하고 있다.

1977년 창간한 《꾸밈》이다. 건축가 김수근이 건축, 도시, 연극과 예술을 주제로 다루었던 《공간》이 미술과 디자인까지 다루었던 잡지였음을 고려하면, 교양과 홍보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던 《배움나무》의 판형은 잡지에 대한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편집과 구성에 대한 인식까지도 판형 등에 차별점을 두어 새롭게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철이 디자인을 맡으면서 《배움나무》의 판형뿐 아니라 인쇄방식도 변화했다. 그는 《배움나무》의 인쇄와 제본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배움나무》 이전의 《엔브코 (ENBCO)》¹⁴⁾는 브리태니커의 세일즈맨들을 위해 객관적인 도표를 담아 세일즈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등사물이었어요. 등사를 위한 초종이에 적는 펜으로 글자를 다 적거나 그 기름종이에 활판 타이핑을 해서 직접 등사기에 걸어서 잉크 묻혀서 찍는 초보적인 인쇄 방법이지요. 그런 식으로 인쇄를 하고 손으로 스테플링해서 세일즈맨한테 나눠주던 사보가 《엔브코》였어요. 내가 맡으면서 조판 방법은 사진식자로 바꾸고, 오프셋 인쇄를 하고, 판형도 바꾸고 종이는 모조지로 바꾸었어요.”¹⁵⁾

2) 제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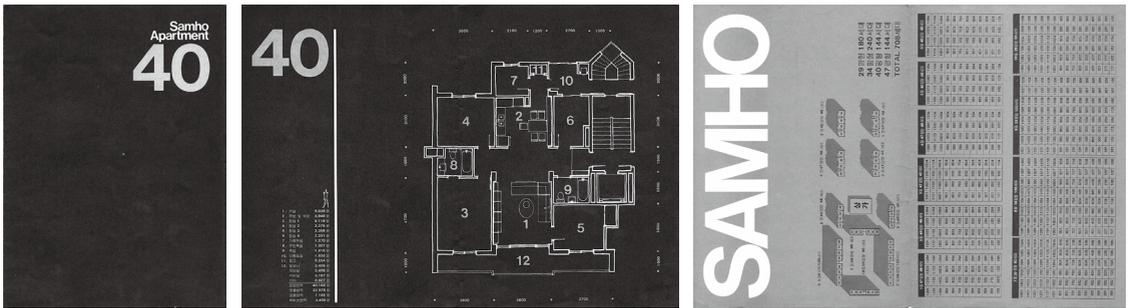
제호 디자인은 1971년까지는 기존 명조체나 고딕체를 그대로 활용했으나 1972년 1월호부터 이상철이 디자인한 제호가 사용된다. 그가 이때부터 한글 디자인에 본격적인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초기 사례다. ‘움’의 ‘이’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이러한 글자 형태의 시도는 비슷한 시기에 디자인한 한국브리태니커의 초기 로고 ‘엔싸이클로피디어’의 ‘클’에서도 나타난다.

1973년 1월호에는 훈민정음 탐구로부터 영향 받은 듯한 글자 디자인의 제호가 사용된다. 1972년 1월에 선보인 제호에는 여러 가지 조형적 실험이 있는 반면, 조형적으로 절제와 정리로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이후 이 디자인의 제호는 《배움나무》 폐간까지 사용되었다. 1973년 1월호에는 《뿌리깊은나무》의 제호 디자인도 함께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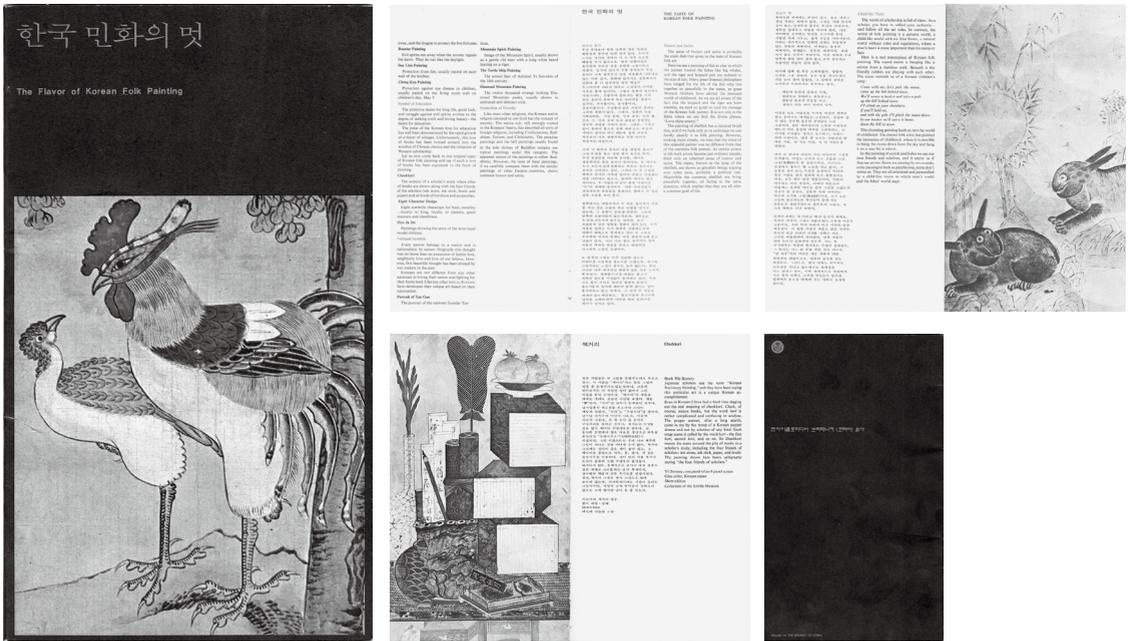
3) 그리드와 레이아웃

《배움나무》의 정방형 페이지는 가로 3단의 그리드를 기본으로 디자인한 형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식은 정방형 페이지를 가장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현대적인 그리드를 이해할 수 있었던 배경에서는 잡지 문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미국의 영향이 있었다. 사진의 사용을 매우 중요하게 다뤘으며, 당시 스위스 국제 그래픽 양식의 등장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한 흐름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모더니즘의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기능주의적 가치와 미감을 동시에

14) 《엔브코》는 ‘엔싸이클로 피디어 브리태니커 코리아’의 회사 명칭에서 따온 제호다. 15) 이상철 심층면접 (2018.8.9)



[그림 15] 이상철이 1970년대 초 디자인한 삼호아파트먼트 분양 홍보물. 1970-1972년경 디자인한 것으로 추정. 이상철은 1960년대에는 유니버스(Univers) 서체를 좋아했고, 후에는 헬베티카(Helvetica)가 좋았다며, 이는 비넬리(Massimo Vignelli)의 영향이라 증언했다. 삼호아파트먼트 분양 홍보물, 《배움나무》에는 주로 헬베티카가 쓰였다. 이후 《뿌리깊은나무》에는 보도니(Bodoni)를 많이 사용했다.



[그림 16] 한국브리태니커에서 1972년 발행한 『한국 민화의 멋』. 이 책은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이상철이 한국브리태니커에 입사한 후 한창기와 첫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이다. 조자용이 글을 썼으며, 민화 촬영과 디자인은 이상철이 했다.

추구하려 한 디자이너의 역할을 보여준다.

4) 사진과 그래픽

《배움나무》에서는 사진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특성은 1970년 전후에 발간되었던 다른 잡지들과 차별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동시대에 발행했던 《창작과 비평》 표지 디자인은 20세기 초 형식과 비슷한데 반해 《배움나무》는 적극적인 사진 이미지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차별화 했다. 이런 특성은 디자이너 이상철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1960년대 한국의 산업 성장기에 기업 홍보 디자이너로 실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진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동시대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잡지에서 실험되었던 국제양식을 직접 눈으로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편집 디자인에 적용했다. 한국산업은행 시절부터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다양한 경험을 했던 이상철은 《배움나무》의 사진을 대부분 직접 찍었다.

4. ‘이상철 스타일’의 특징과 형성 과정

한국산업은행 재직 당시 디자인이 스위스 그래픽 스타일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이 당시 스위스 그래픽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늘 보던 잡지들, 《내셔널지오그래픽》, 《플레이보이》, 《타임》, 《루크》, 《라이프》가 내 교과서였어요. 그 잡지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디자인 감각이 드러난 것 같아요. 스위스 그래픽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꼭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내셔널지오그래픽》, 《타임》 등이 스위스 그래픽 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물론 거기에 기반 했을 수는 있지. 바우하우스가 시카고 쪽으로 옮겨 갔으니까요.”¹⁶⁾

그가 한국산업은행에 다니던 시절 접한 서구의 그래픽 디자인은 유럽과 미국의 출판 인쇄물이었고, 특히 앞서 언급한 미국 잡지 디자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스위스 국제 그래픽 양식은 미국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스위스 국제 그래픽 양식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철은 문단 가운데 정렬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조사부의 많은 보고서 틸에서 이상철이 직접 디자인한 보고서의 표지는 확연히 달라 눈에 띈다. [그림 6] 그리고 이상철의 새로운 레이아웃 스타일은 조사부의 전반적인 보고서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좌우 대칭 레이아웃과 가운데 정렬 레이아웃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 좌우 라인이 없는 숫자표가 많은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는 이상철이 서구식 디자인 스타일, 즉 스위스 스타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디자인이었다면, 한국브리태니커에 입사한 1970년대 초 부터는 한국 전통의 소재와 한글에 대한 디자인 실험을 디자인에 적용, 스위스 스타일의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상철만의 편집 디자인 스타일을 보여주기

16) 이상철 면접 (2018.6.8)

시작한다. [그림 15] 안정연¹⁷⁾은 이상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상철 씨는 《뿌리깊은나무》의 로고 디자인도 훌륭했고, 그 당시 에디토리얼 디자인이 상당히 감각적이었습니다. 한국 디자인에서 에디토리얼 디자인을 가장 최초로 개척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이상철 스타일’이 출판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안상수는 1981년 《마당》을 창간할 당시를 회고하며 《뿌리깊은나무》는 ‘나의 교과서’였다고 증언했으며,¹⁸⁾ 조의환¹⁹⁾은 《뿌리깊은나무》 창간 이후 한국의 잡지 출판계에서는 아트디렉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 다투어 아트디렉터를 뽑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상철의 디자인은 동시대에 활동한 디자이너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출판 디자인계의 문화를 바꿔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아직 진행형이다. 《뿌리깊은나무》 이전 자료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이상철의 증언과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거꾸로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었기에 1차 문헌 자료를 구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이상철이 여러 심층면접에서 한국산업은행 시절의 대표작으로 꼽은 『A Decade of Korean Industry 1964』를 ‘Industry of Korea’²⁰⁾라고 기억하고 있었고, 이 책을 찾고서야 당시 한국산업은행의 영문명이 지금의 ‘Korea Development

Bank’가 아닌 ‘Korea Reconstruction Bank’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 점도 1960년대 한국산업은행의 출판물을 찾는 데 큰 난관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산업은행의 자료는 정확한 서명만 찾으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이상철이 본격적으로 첫 사보 디자인을 한 1968년 이후 《産友》의 실물이 없어 이 작업물에 관해서는 아직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이상철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각 은행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일은행의 권명광, 한국산업은행의 남철균, 제일은행의 여창구가 그들이며, 당시 미술대학을 졸업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은행에 입사했다는 증언만이 있을 뿐, 각 은행의 홍보실에서 그들이 한 작업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 시기 이상철의 한국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홍보실의 홍보물 디자인을 분석하는 것은 1960년대 한국디자인을 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 당시 많은 디자이너가 은행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상철은 서울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1962년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했기 때문에 소위 동시대

17) 안정연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였으며, 1981년 CI

전문회사인 율커뮤니케이션을

설립했다. 한국디자인사학회

구술사위원회의 심층면접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디자이너들을 증언하면서

이상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언급했다. (2020.10.24)

18) 안상수 이상철

심층면접(2019.5.14)

19) 조의환은 1981년 창간한

《마당》의 디자이너였으며,

조선일보의 아트디렉터였다.

(2019.11.5)

20) 강승연의 박사학위 논문

디자이너 중 비교적 빠르게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가 한국산업은행에서 했던 여러 가지 디자인적 실험은 분명 1960년대 중반 이후 민간 은행의 홍보실에서 활동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화보를 접한 제일모직이 10년사 책자 디자인을 의뢰하기 위해 이상철을 찾아갔다는 문병국의 증언에서 1960년대 이상철이 디자인한 출판물이 주변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강지민은 1960년대 도안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할 수 있는 회사는 은행 밖에 없었고, 19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설립되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연구원이 되거나 많은 기업의 홍보실에서 디자이너를 뽑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²¹⁾

이렇듯 1960-1970년대 초반의 한국 디자인계는 국가 주도 산업진흥정책 일환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1960년대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기업의 디자인실과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아직 당시 활동 결과물을 많이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기록과 증언만으로도 많은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연구를 계속 확장할 예정이다. 이 연구가 국가 디자인

진흥의 시작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1960년대와 1970년대 디자인을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6

「디자이너 이상철 연구」 본문 중 『Industry of Korean』로 표기한 것을 『A Decade of Korean Industry 1964』로 정정한다.
21) 강지민은 홍익대학교 공예학부 목칠전공 64학번이며, 우송정보대학과

우송대학의 교수였다. 홍익대학교 공예학부의 63, 64학번을 주축으로 구성된 친우회인 '홍우회'의 회원이다. '홍우회' 회원 중 도안전공이었던 주영원은 해태에 입사하여 코래드 상무를 위임했고, 허영남은

삼립식품, 이재극은 미도파 백화점 홍보실에 입사했으며, 채홍범은 KOTRA, 이규용은 한양주택, 코오롱, MBC에 재직했다. 이들은 대부분 기업의 홍보실 디자이너로 입사해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54), 《産友》, 1권 1호, 1권 3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55), 《産友》, 2권 4호, 3권 2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56), 《産友》, 3권 3호, 3권 11호, 3권 10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57), 《産友》, 4권 1호, 4권 3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5), 《産友》, 30-35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6), 《産友》, 36-37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7), 《産友》, 39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0-1962), 《調査月報》, 6권, 62-63, 65-83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2-1964), 《調査月報》, 7권, 84-101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2), 『(全國)鑛業 및 製造業事業體 標本調査報告 1961』,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4), 『鑛工業標本調査報告: '63 Report on sample survey for mining and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4), 『韓國産業銀行 十年史』,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4), 『A decade of Korean industry 1964』,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6), 『래드크리프委員會報告』,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7), 『Industry in Korea』,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8),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Report on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1967』,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9), 『한국의 석유화학공업』, 한국산업은행
- 한국브리태니커 편집부, (1971.1-1975.11/12), 『배움나무』, 한국브리태니커
- 강운구 외, (2008), 『특집! 한창기』, 창비
- 삼성출판박물관 편집부, (2018), 『잡지를 읽다-소년에서 샘이깊은물까지』, 삼성출판박물관
- 조자용, (1972), 『한국 민화의 멋』, 한국브리태니커
- 월간디자인 편집부, (1977), 《월간디자인》 5월호, 디자인하우스
- 월간디자인 편집부, (1978), 《월간디자인》 5월호, 디자인하우스

심층면접

- 이상철, 2018년 5월 12일, 카페 오펜두스(서울파이낸스센터)
- 이상철, 2018년 6월 6일, 이가스퀘어 사무실(중구 필동)
- 이상철 안상수, 2019년 5월 14일,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경기도 파주)
- 이상철, 2021년 5월 19일, 이가스퀘어 사무실(중구 필동)
- 문병국, 2019년 12월 18일, 카페

오펠두스(서울파이낸스센터)

- 조의환, 2019년 11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종로구 세종대로)
- 이병혜, 2018년 3월 31일, 이가스퀘어 사무실(중구 필동)
- 강지민, 2021년 5월 7일, 자택(성북구 성북동)

그림 차례

- [그림 1] 대봉산업 카다로그에 실린 정연종의 일러스트레이션,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p.6-7
- [그림 2] 선광기획의 대봉산업안내책자(1977),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14
- [그림 3] 유디자인연구소의 주식회사 금강의 해외 카다로그,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17
- [그림 4] 유디자인연구소가 디자인한 로케트 건전지 심볼 마크,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19
- [그림 5] 오병권이 디자인한 다양한 심볼 마크, 《월간디자인》 1978년 4월호, p.21
- [그림 6] 『韓國産業銀行 十年史(한국산업은행 십년사)』의 표지와 내지(좌), 『Report on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의 표지와 내지(우)
- [그림 7] 한국산업은행에서 조사부에서 매월 발행하는 《조사월보》 1962년 4월호의 표지와 내지
- [그림 8] 『A decade of Korean 1964』의 표지와 내지
- [그림 9] 1965년 34호, 35호 《産友》에 실린 이상철의 사진 작품
- [그림 10] 1970년 10월-71년 12월호의 표지
- [그림 11] 1970년 2월 창간호-1970년 11/12월호의 표지
- [그림 12] 덴마크 디자인 잡지 《모빌리아》 1970년 3월, No.176의 표지(좌), 오른쪽은 이탈리아 디자인 잡지 《오타고노》 No.3 (Ottobre 1966)의 표지(우)
- [그림 13] 정방형의 《배움나무》 내지
- [그림 14] 사진의 콘트라스트를 극대화하여 그래픽 이미지화하는 것은 《배움나무》의 대표적인 그래픽 스타일이다.
- [그림 15] 이상철이 1970년대 초 디자인한 삼호아파트먼트 분양 홍보물
- [그림 16] 한국브리태니커에서 1972년 발행한 『한국 민화의 멋』